



## 치협, 치의정원 감축 TF 본격 가동 각 치대동창회 부회장 위원 동참 '압박'

“치과계 내부의 힘을 결집해 몸으로 행동 해야 할 때다. 절실함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치과의사 적정수급 문제를 풀어내자.”

29대 치협 집행부가 치과의사 적정수급(정원감축)문제를 풀기 위해 TF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지난 9월 27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발대식을 열고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공동위원장이 박영섭 부회장과 이석초 전국 치대·치전원 총동창회 회장을 비롯해 간사인 강정훈 치무이사, 각 치대·치전원 동창회를 대표하는 수석부회장 등 TF 위원들이 참석해 위촉장이 전달됐다.

치과의사 적정수급 문제는 새로운 집행부 출범시 매번 최우선 선결과제로 손 꼽혀왔다. 그만큼 치과 개원가의 피부에 와 닿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늘 제자리걸음만 해왔다.

더군다나 적정수급의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치대 입학정원 감축'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치과계 내부에서조차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치대 관계자들은 치과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제살을 깎아내야 하는 '정원 축소 문제'에 있어서는 뒷짐을 진채 먼 산만 응시했다.

이에 29대 집행부는 이석초 전국 치대·치전원 동창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각 치대·치전원동창회 수석부회장들을 TF 위원으로 구성하는 카드를 내놓고 이날 발대식을 가졌다. 치

대 입학정원 감축 등에 있어 대학들을 '압박' 혹은 '회유' 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김철환 학술이사는 “지난 집행부에서도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난제가 많았다. 특히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교수단체들이 능동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TF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기태석 여론수렴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모임에서 협회가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해서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을 물은 결과 인력수급 문제를 압도적(70~80% 비중)으로 꼽았다. 그만큼 개원가는 절실하다는 것이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 치과계 내부 합의를 이루고 이번에는 꼭 정부입안자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을 대표한 위원들도 “개원가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석초 TF 공동위원장은 “이제는 더 이상 탁상공론만을 할 때가 아니다. 치과계 내부의 힘을 결집해 몸으로 행동을 해야 할 때다. TF가 절실함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치의 적정수급 문제를 풀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섭 공동위원장은 “국민, 정부, 치과계 내부를 향해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 힘을 합치면 적절한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치대에서도 인원감축에 동참하겠다고 선회하는 분위기다.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난제를 풀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치협,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촉구” 5개 보건의약단체 공동성명서 “의료 빈익빈 부익부 심화우려”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과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5개 단체는 공동으로 9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정책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잘못된 정책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5개 단체는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이 붕괴하고 결국 국가의료체계 전체가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 19일 공포·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구강보건학회→ 예방치과 · 구강보건학회 명칭변경 승인 치협 정기이사회, 소아치과학회는 보완 후 재상정기로

치협 분과학회인 대한구강보건학회의 명칭을 '대한예방치과 · 구강보건학회'로 변경하는 안이 최근 치협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반면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한소아치과학회의 회칙 개정안은 반려돼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한 후 치협 이사회에 재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치협은 제5회 정기이사회를 9월 16일 오후 7시부터 치과의사회 관 대회의실에서 열어 치과계 현안과 관련된 주요 토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학회 명칭변경 관련 회칙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장시간 토론을 거친 후 대한소아치과학회의 회칙 개정안은 반려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회칙 개정안에 영문 명칭이 기재돼 있지 않고

명칭 개정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구강보건학회의 경우 학회명과 전문의 명칭이 불일치해 혼란이 있음을 고려하고, 전문의 명칭을 학회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타당성이 인정됐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는 윤현중 AGD수련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최근 열린 AGD 수련위원회 워크숍에서 논의된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자격증 갱신에 대한 설명 및 자격증 갱신과 관련된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향후 갱신 방향을 논의했다.

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위원 교체 등을 승인했으며, 위원회 사업비를 운영기금 특별회계에서 차입하는 안건도 이견 없이 통과됐다.



### 회원 경영 도움 정책 '1순위' 추진 치협 경영정책위 초도회의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기세호 · 이하 위원회)가 29대 집행부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현안 및 사업 계획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 제이드홀에서 초도위원회를 열어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한편 위원회 주요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존 은퇴/신규 예정 치과의사 양도 · 양수 프로그램(멘토링)에 대해 양도 · 양수부분과 순수 멘토링 제도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멘토링의 경우 멘토로 참여할 인원을 각 지부 또는 구회를 통해 추천받고 멘티 희망자의 이력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등 전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아울러 치과병원 운영에 필요한 서식들을 집대성한 치과종합서식집 발간 및 홈페이지 오픈이 1년을 넘은 상황에서 지속적

인 자료 업데이트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위원회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세미나의 경우 10월 말 또는 11월 초 경 치과의사들의 다양한 진로 등을 주제로 개최기로 잠정결정하고 추후에도 회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인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한편 온라인 모임방을 만들어 위원회 관련 토론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 논의하기로 했다.

기세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임된 위원과 신규 위원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각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참신한 의견들이 함께 도출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의 목적이 실제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것인 만큼 여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